

보도일시 (인터넷) 2025. 4. 20.(일) 11:00
(지면) 2025. 4. 21.(월) 조간

배포 2025. 4. 18.(금) 오후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로 (주)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주)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 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주)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하였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하였다. 이후 4월 17일(목)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주)고려고속훼리, (주)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주)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하였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였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해상교통 정상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고려고속훼리 - 웅진군 간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실시협약' 체결('25.3.12)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박 지원을 넘어, 인천-백령 항로와 같이 교통 불편이 누적된 지역의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서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 이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수 (044-200-5731)

참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현황

□ 사업 개요

- (목적)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건조를 지원하여 연안해운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
- (법적근거) 「해운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 「선박투자회사법」
- (조성기간 /펀드규모) '16~'27년 / 3,000억 원
- (지원대상 /운영기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 (주)세계로선박금융
- (현황) '16~'25년 펀드 2,390억 원 조성, 12척 선박 지원(6척 건조 완료)
 - * '16~'22년까지 1,990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8.17)에 따라 '24~'27년 출자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
- (주요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지원*
 - * 선박대여회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및 선박확보

선가	펀드	금융기관	자부담	운용방식
120억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6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60억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현재 운항 중 지원 선박 현황

지원선박	선사명(선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한일고속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2	한일고속	여수-제주	카페리	19,700톤
3	에이치해운	녹동-성산포	카페리	13,000톤
4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현성MCT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고려고속훼리	인천-백령	쾌속선	1,300톤